

## 周易思想의 形上形下論과 生死觀(六)

跛龔生

그러면 物이 死하고 生하는 作用은 어떠한가. 精氣가 集合하여 生命을 作하고 그것이 分散하여 物質로 變化한다. 그리고 精氣는 物의 原素로서 現代科學의 □子 □子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거니와 周易은 物의 原素로 하여 五種卽五行을 發見하였을 뿐이오. 그 以上の 分析을 實驗해보지 못 하였으니, 現代科學의 □子 □子等으로써 精集라한것이라할까. 그리 하여 □子和□子が 有機的으로 凝結한것을 精又는氣라하고 그의 有機的 技能을 喪失한것을 魄이라하고 그가 有機體로부터 分離함을 魂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魂은 飛하고 魄은 降하는데 魂은 神이오. 鬼는 魄이라하여 飛去한 魂이 歸來함을 意□하고, 또 下降한魄이 不反함을 抽想하였다. 그러므로 鬼는 凶한것이오. 神는 吉한것이라하여 精에 神을 擬하고 體에 魂을 擬하여 精神이라는말과 體魂을 이라는 말을 만들어 노했다. 그리 하여 精과 氣가 物이 되고 魂卽精氣가 浮하여 變化하므로 鬼神(卽 物과 精氣)의 情狀을 알 수 잇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周易의 鬼神도 擬在이거나 假說이 아니오. 易理에 依한 變化의 物質을 이 름이다. 따라서 周易思想의 鬼神意識도 物理를 認識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 하여 程子는 『原始反終, 知死生之說, 但窮得則, 知死生之說, 不須將死生, 便做一個道理求, 人能原始, 知得生理, 便能要終, 知得死理, 若不明得, 便殊千萬般安排著 亦不□□, 原始則足以知其終反本則足以知其始, 死生之說, 如是而已矣, 魂爲精魂, 其死也□于天, 消散已意, 鬼是往而不反之義, 是說鬼神, 便是造化也』라 하였다. 그런데 永野爲武는 이렇게 말하였다.

乾燥한 植物의 種子가 幾白年幾千年間(埃及의 幕中에서 나온 小麥이 五千年後의 今日에 發芽하였다 함과 같이)을 經過하여 物을 얻으면 發芽하는것과 박테리아를 純粹한 窒素中에 너홀지라도 또는 液體헤리움(攝氏零下二六八, 五度)에 너홀지라도 或은 煮沸할지라도 強力한 紫外線에 쪼일지라도 오히려 生命을 回復하여 一時中絶하였든 生活을 다시 繼續하는 일이 있다. 此等の

事實로 볼 것 같으면 死라는 概念은 우리가 普通常識的으로 死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 神狹義로 생각지 안흐면 안 된다. 卽 生命의 可視的인 時間的 終止는 死를 意味치 안는 것같이 생각된다. 다시 一步를 나가서 生命의 空間的인 終止 卽 生命體의 分裂分解는 死이나 아니냐고 反問할수잇으나 이에 對한 答은 原理的으로 否定的이다. 어찌 그러냐 하면 만일 生命體를 分解하야 그 部分을 다시 原狀대로 맨들 수 잇다 하면 生命은 再現하야 持續하게 되므로써 이다. 그런데 幸이라 할는지 不幸이라 할는지 이 故意的인 생각은 高等動物에 잇어서는 너무 妄想的인것을 곧 理解할수잇다. 그러나 下等動物에 잇어서는 항상 페닉쓰의 神話와 같은 事實이 實行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生物體의 空間體系或은 配順을 다시 回復할 수 없는 狀態의 分解가 進行된때에 死라 할 수 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世間에서는 흔히 不死라는말을 使用하는데 이 말은 決코 自然科學的으로 嚴密한 意味로써 使用되는일은 거이 없다. 어떠한 生命體일지라도 瞬間 物質的으로 볼 것 같으면 破壞하고 새로 發生하야 連續的인 姿勢를 示함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그것은 物質代謝의 恒常的 改變을 隨伴하고잇다. 그러면 하나의 生命體의 本質과 個性을 形成한 體制와는 대체 時間的인 最後를 짓지 안으면 안 될 것인가. 體制가 破壞되는것은 明白한일이지마는 그 自身の 解消의 萌芽를 그 自身中에 가지고 잇는 것인지 아닌지 이에 對하야 生物學者는 原生動物과 再生現象과 高等多細胞動物의 組織培養等等의 事實을 들어 그의 必要性을 否定하는것 같이 생각된다. 그리고 高等動物에 잇어서는 體細胞의 死는 判然하고 生殖細胞만은 永遠의 生命을 持續한다. 高等動物의 死는 거의 腦髓의 死와 共通의 運命을 가진 것인데 그를 逆說的으로 말하면 生命體는 腦髓와 함께 死에까지 進化한것이라고 할 수 잇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死는 儼然한 事實이지마는 生物學的으로 容易히 把握할수 없음을 알 수 잇다고 말하엿다. 또 와이즈만은 一八九二年에 잇어서 單細胞動物 예컨대 아미바와 滴蟲類가 물에 分裂하야 生殖한다는 根本的인 觀察을 示하야 分裂한 兩個의 娘個體는 母蟲과 같이 生活하고 또 增殖함이 可能하여 死骸를 남기지 아니하므로 死라는 現象은 없다고 생각하엿다. 비록 子孫의 大部分이 外的 障害와 不適當한 生活條件에 依하야 斃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現今生存하고 잇는 原生動物은 다못 同種인것만이 아니라, 事實上 原始時代에 生存하고 잇든 것과 同一한것이오. 無敵한 世代를 通하야 變치아니하엿다고 할 수 잇다. 그러므로 原生動物은 不死的인것이라고 말하엿다. 그리고 多細胞動物에 關해서는 原生動物學者 드프라인은 自然死의 必然性을 決定的으로 拒否할 것이라고 하엿다. 그리하야 線細胞와 角化하는 表皮細胞와 赤血球等の 細胞가 各別히 自然死를 짓는것은

生命의 一般的 法則에 依하여 規定할것이 아니요. 一定한 動物에 特定되어있는 特殊한 配合에 依하여 規定되어 있는것이다. 多細胞動物의 死는 一般細胞의 死에 基因치안코 全體制의 統制配順에 拒否됨에 基因한것이다. 細胞死는 少數의 例外를 除하면 人爲的인 死이요. 細胞의 環境에 依하여 規定되는것이다. 生活物質은 그 自體中에 死의 法則을 負(荷)것이 아니요. 오즉 死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永野爲武는 이어 모든 生命있는 個體는 드디어 死에 頹落한다. M, 헤루보룬의 말과같이 『死는 오랜 發生의 節目이다』 그러므로 어느 個體가 老衰死하기전에 種의 保存을 위하여 新生命에 對한 生殖細胞에 生命이 連結되는데 이에 發生과 成長의 本來의 姿態가 있다고도 생각되는 것이다. 이에 生活物質의 永遠不死의 構造가 있다. 卽 生殖과 死와는 種에 對하여 不斷한 新生命力의 源泉이 아니면 안 된다. 벨테쓰의 말과같이 原生□物에서 불수있는 分裂및 接합이든지 有性生殖을하는 生物體의 個體의 死이든지 種의見地에서 觀察하면 畢竟 本質的으로 같은 것이된다. 種이야말로 有機的 自然物의 永續의 形態이요. 段階라고 생각한다 하였다. 그리하여 氏는 最後로 自然死은 다못 個體만에 있는 것이 아니요. 種에도 老衰가 있음을 注意하고 싶다. 卽古生物學의 가르치는바에 依하면 種의 老衰와 種의 自然死이다. 種의 老衰, 種의 自然死는 大生命 그것의 老衰이요. 生命이 있는 生命을 □來하고 生命을 哺育하고있는 地球自體의 老衰라 하지만흐면 안된다. 萬物은 그리하여 드디어 永遠히 流轉하는것이라한 헤라크레투쓰의 말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死는 辨證法的으로 理解하지안흐면 안된다고 믿는다 하였다.

그리고 周易의 生命觀은 『續之者는善야. 成之者는 性야라』 하야 善은 傳하고 惡은 傳치 안는다. 惡을 傳하면 그는 天時와 地理에 得宜한 適者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種은 繁盛은 姑捨하고 滅亡을 救치못한다. 이것은 따윈의 進化說과 같은 생각이다. 그리고 種의 進化는 어느 段階에 이르면 質的으로 變化하야 從來의 屬性을 버리고 新屬性을 創造하지마는 그러나 善한 屬性은 버리지 안코 보다 善한 屬性을 創造한다. 그리 하야 原始反終의 回數를 거듭할 수록 進化의 度를 加하야 環境에 適應함으로써 種은 技能의 精巧와 品質의 美麗와 子孫의 繁榮을 保障한다. 여기서 『生生之爲易』이라함은 原始反終하야 續善成性함으로 新生은 舊生이 아니요. 그보다 나은 生이라 함이니 生生之易은 進化의 易을 이룸이다. 그러므로 事物의 變革原理를 가지고 어느 「點」에 膠着시켜서 그의 不變性을 強調하는 西洋思想의 形而上學은 말할 것도 없고, 東洋思想의 中庸說도 周易思想과 相容할수없는것을 녀넉히 알 수 있

다.

(九月二十八日)